

기타마에부네(北前船)의 기항지: 오바마와 쓰루가

개요

기타마에부네(北前船, ‘북으로 가는 배’)는 에도 시대 중기(1603 년~1867 년)부터 쇼와 초기(1926 년~1945 년)에 걸쳐 오사카와 홋카이도 사이의 연안 항로를 항행한 교역선입니다. 세토 내해에서 일본해를 왕복했는데, 북쪽에서는 청어와 다시마, 서쪽에서는 의류나 술, 소금 등의 현지 생산품을 매매하기 위해 각지의 항구에 기항했습니다. 해상무역은 항구도시의 발전을 촉진했고 해운사업을 하던 상인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며, 지역의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상세 정보

기타마에부네(北前船)

현재 기타마에부네라고 불리고 있는 배는 와카사 지역에서는 센고쿠부네, 오마와리, 베자이센이라고 불렸습니다. 기타마에부네는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모두 물자를 운반했는데, 각 기항지에서 교역을 했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에도(현재의 도쿄)까지 태평양 연안을 항행하는 배가 귀로에서는 빈 선창으로 돌아오는 것에 비하면 더 높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한 번영

오바마와 쓰루가는 일본해 쪽 항로 중간지점에 위치했는데, 당시 수도였던 교토에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기타마에부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항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는 오바마나 쓰루가에서 짐을 내릴 수 있었고, 상품을 육로로 교토까지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마에부네는 두 마을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음식이나 상품 및 소식을 전하여 무역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일본 각지의 다양한 문화를 기항지에 전했습니다. 특히 쓰루가는 항구로 들어가는 많은 배들에 의해 번성하여 17 세기 후반에 활동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대체 경로와 교통수단의 발전

이쿠고 혼슈와 규슈 사이의 관문 해협을 지나 세토 내해를 경유해서 오사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니시마와리 항로가 개척되자 곧 그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쓰루가, 오바마, 비와코, 오쓰(현재의 시가현), 교토를 경유하는 일부 육로 교역로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이후 철도와 기타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기타마에부네의 이용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전시품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물은 기타마에부네의 정교한 모형 복제품으로, 원품은 오바마 하치만 신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배 모형은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신 후나다마의 혼을 담은 신성한 그릇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실제 배 돛대에 달았기 때문에 후나다마를 숭배하는 이 형태는 오바마만이 가진 특유한 것입니다.

그 밖의 전시품으로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간지 문자를 사용한 19 세기 중엽의 방위자석과 배의 통행증으로 사용된 목제 명패, 오바마 번 기타마에부네 승무원의 일기 복제본이 있습니다. 호랑이 머리와 물고기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전설 속 생물 샤치호코의 큰 와카사 질그릇과 조각상, 3 마리의 새끼를 가진 암탉 와카사 마노 조각은 기타마에부네가 교역하던 시대에 이 지역에서 출하된 상품의 한 예입니다.